No. 2 기초 개념 읽는 시간 5분

PER이 낮으면 정말 싼 주식일까?

주가수익비율(PER) 하나로 가격을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두 가지를 가상의 회사로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PER은 업종 평균과 이익의 지속성을 함께 봄

확인할 숫자

PER, 업종 평균 PER, 순이익



이미지: AI 생성.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 그림이며 실제 장면이 아님.

목차

1. PER은 무엇을 알려 줄까?
2. 업종이 다르면 PER의 기준도 달라질까?
3. 순이익이 한 번 크게 늘었다면 PER은 어떻게 달라질까?
4. 이익이 줄고 있다면 낮은 PER을 믿어도 될까?
5. 낮은 PER을 만났을 때 던질 세 가지 질문

> 이 글의 회사와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PER이 5배도 안 되는 종목을 발견하고 "이렇게 싼데 왜 아무도 안 사지?" 하고 의아했던 적,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종목 검색 화면에서 PER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면 낯선 이름들이 위쪽에 줄지어 나오죠.

그런데 PER이 낮으면 정말 싼 주식일까요? 놓치기 쉬운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가상의 회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1

PER은 무엇을 알려 줄까?

먼저 PER이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PER은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의 줄임말로,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회사가 한 해 번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 줍니다.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사진: 성조기가 걸린 뉴욕증권거래소 정면, David Blaikie, Flickr.

주가가 10,000원이고 한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 가상의 회사 E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PER은 10,000원 ÷ 1,000원, 즉 10배입니다.



그림 1. 가상의 회사 E. 이익이 매년 같다고 단순하게 가정했을 때 주가는 몇 년 치 이익인지를 나타냄.

쉽게 말해 지금 가격이 1년 치 순이익의 10배라는 뜻입니다. 이익이 매년 같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10년 동안 번 이익이 지금의 주가와 같아집니다. 같은 이익을 내는데 주가가 5,000원이라면 PER은 5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PER이 낮을수록 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PER만 낮으면 항상 싼 주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02

업종이 다르면 PER의 기준도 달라질까?

PER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업종마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와 안정성이 달라서 시장이 매기는 평균 PER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천천히 늘어나는 업종은 PER이 낮게, 빠르게 성장하는 업종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의 회사 F와 G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F가 속한 업종의 평균 PER은 6배인데 F의 PER은 8배입니다. G가 속한 업종의 평균 PER은 30배인데 G의 PER은 20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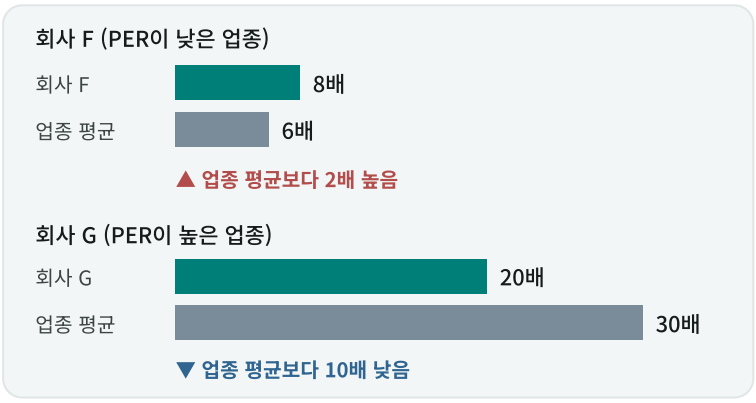


그림 2. 가상의 회사 F와 G. 막대 길이는 PER 값에 비례하며, 각 회사는 자기 업종 평균과 짝지어 비교함.

숫자만 보면 F의 PER이 G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 안에서 보면 F는 평균보다 2배 높은 가격이고, G는 평균보다 10배 낮은 가격입니다. 낮은 PER을 가진 쪽이 오히려 비싼 셈입니다.



이미지: AI 생성.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 그림이며 실제 장면이 아님.

그래서 PER은 다른 업종끼리 비교하지 않고 같은 업종의 평균과 비교합니다. 업종별 평균 PER은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앱의 업종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은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3

순이익이 한 번 크게 늘었다면 PER은 어떻게 달라질까?

두 번째 함정은 분모인 순이익에 있습니다. PER은 순이익이 클수록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순이익이 이번에만 커졌다면 PER은 실제보다 싸 보입니다.

가상의 회사 H의 시가총액이 3,00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H의 평소 순이익은 한 해 150억 원쯤이고, 이때 PER은 3,000억 원 ÷ 150억 원, 즉 20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장 부지를 팔아 300억 원의 이익이 한 번 생겨 순이익이 450억 원이 됐습니다. 올해 PER은 3,000억 원 ÷ 450억 원, 약 6.7배로 뚝 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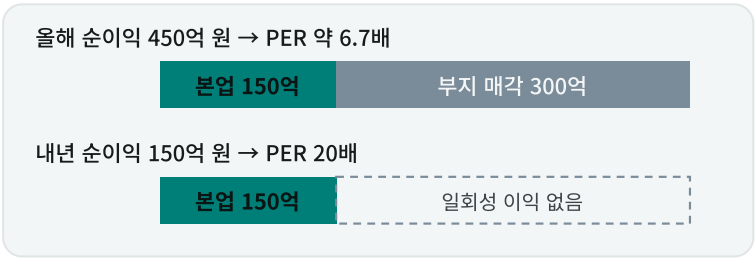


그림 3. 가상의 회사 H(시가총액 3,000억 원 기준).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함.

공장 부지는 한 번 팔면 끝입니다. 내년에 같은 이익이 또 나오지 않는다면 순이익은 다시 150억 원쯤이 되고 PER도 20배로 돌아갑니다. 6.7배는 싸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이익이 한 번 부풀어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일회성 이익이 있었는지는 분기보고서 주석이나 실적 설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04

이익이 줄고 있다면 낮은 PER을 믿어도 될까?

일회성 이익이 없어도 문제는 남습니다. 이익이 매년 줄어드는 회사라면 지금의 PER은 지난 이익으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회사 I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3년 전 200억 원, 2년 전 150억 원, 올해 1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PER은 5배, 약 6.7배, 10배로 올라왔습니다. 내년 순이익이 50억 원까지 줄면 PER은 20배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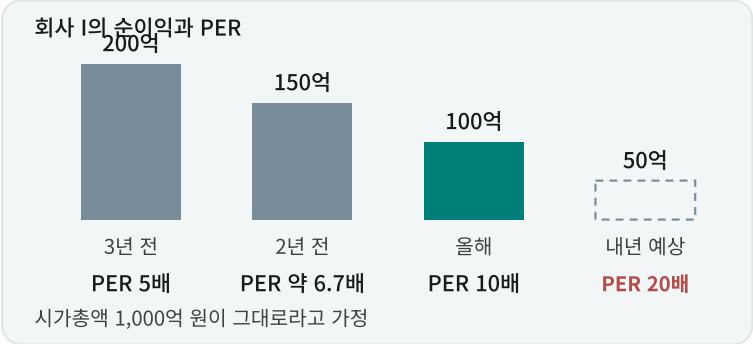


그림 4. 가상의 회사 I. 막대 높이는 순이익에 비례하며, 점선 막대는 내년 예상 값임.

이처럼 지금 PER이 낮아 보여도 이익이 줄고 있다면 앞으로 PER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난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으로 계산한 PER도 함께 봅니다. 이를 선행 PER(앞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으로 계산한 PER)이라고 부릅니다. 예상치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찾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05

낮은 PER을 만났을 때 던질 세 가지 질문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PER이 낮은 종목을 만나면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같은 업종의 평균과 비교하면 어떤가?"**
   → 다른 업종과의 비교는 의미가 작습니다.

2. **"이 순이익에 일회성 이익이 섞여 있지 않은가?"**
   → 한 번 생긴 이익은 PER을 실제보다 낮아 보이게 합니다.

3. **"이익은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늘 가능성이 있는가?"**
   → 이익이 줄고 있다면 낮은 PER은 곧 높아집니다.

이처럼 PER은 싼 주식을 알려 주는 정답이 아니라 가격을 따져 보는 출발점입니다. PER이 낮으면 정말 싼 주식일까라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고, 그 이익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때에야 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dart.fss.or.kr (기업의 분기·사업보고서와 일회성 손익 확인)
- 업종별 평균 PER: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사 앱의 업종 정보 [확인 필요: 메뉴 위치와 기준일]
- 글에 쓴 회사 E~I와 모든 숫자는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기업 자료가 아님

분류·태그 기초 개념 #DART #PER #기초지표 #밸류에이션 #주가 해석

온라인 원문: https://www.stock-diary.kr/p/2026-11-15-per.html

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참고 자료」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허락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 출처는 본문 캡션과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담당자 검토]